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한 영혼의 전도자 안드레 (마 10:2-4)

안드레는 '한 영혼 비전의 전도자'입니다.

1. 출신배경과 회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막 1:16).

위 말씀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부르심, 즉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 곁을 지나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35-36).

이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 옆에 요한의 두 제자가 서 있었는데 그중의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요한을 따라 예수님께 깊은 가르침과 교제를 나누었고, 마침내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2. 소명과 사역

베드로는 직관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직관을 가지고 사역했으며 전형적인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안드레는 대중을 인솔하기 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는 스타일입니다. 만약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설득력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위대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중을 회심케 하는 베드로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처럼, 전도된 사람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만질 수 있었던 안드레도 베드로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사건에 안드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그의 세심함으로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발견하여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전도의 중요성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는 사역 또한 전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또한 각 부서와 기관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섬세하게 섬기고 이끌어주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Andrew, an Evangelist of the Soul (Matt. 10:2-4)

Andrew, was 'a visional evangelist of the soul.'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1. The background and conversion

"As Jesus walked beside the Sea of Galilee, he saw Simon and his brother Andrew casting a net into the lake, for they were fishermen." (Mark 1:16)

The above mentioned verse stands for a calling of Simon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They caught fish just as they did as usual at the Sea of Galilee. At that time Jesus passed by there, said to them,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When they heard his word, at once they followed Jesus.

"The next day John was there again with two of his disciples. When he saw Jesus passing by, he said, 'Look the lamb of God'" (John 1:35-36).

There were John's two disciples beside the Baptist John who shouted like the above verses. One of them was Simon Peter's brother, Andrew. Andrew who had been following John was taught by Jesus and shared a relationship with Him. Finally, he ran to his brother Peter and witnessed Jesus.

2. Calling and Mission

Peter was an intuitive leader. He worked with his momentary intuition and was typically a hot-blooded man. On the other hand, Andrew was a man of style, leading persons one by one rather than the public. If Andrew did not give Peter an evidence for Jesus persuasively, Peter was not able to live his great life as an Apostle. Just as Peter's role was necessary to convert people, as Andrew who was able to touch carefully the heart of individuals was as important as P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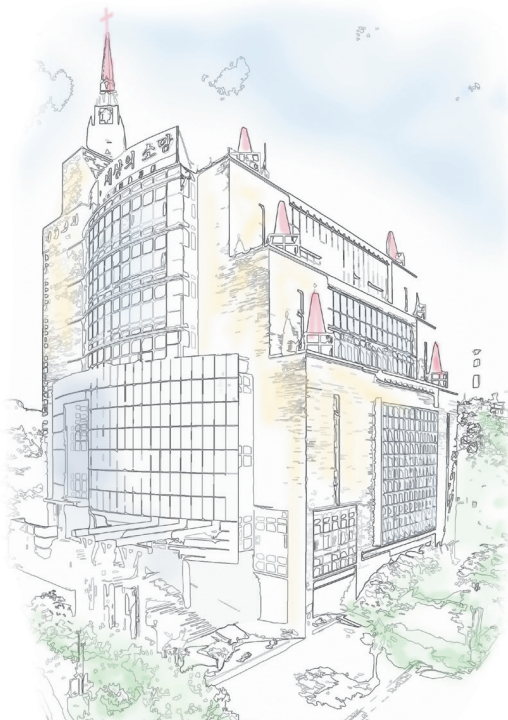
When Jesus made the miracle of five bread and two fish, the name of Andrew appeared there. Andrew, showing his carefulness, found a child's lunch box and brought it to Jesus.

My beloved Christians,

There are two instructions given by Andrew.

First, the importance of the mission work for individuals means that the fact that a soul is brought to Jesus is very important. Second, it is important for us to take care of the mission of individuals, one by one, inside the church as much as to evangelize people.

Through fellowship meetings, in a section or division, by carefully serving and leading those who we meet,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a precious servant who will be used to extend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오늘, 2013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오후 4시, 본당
장학금 수여식: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하영수 장로)는 2013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로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46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브리스길라 장학생 - 2명 / 허승일, 박다형
2. 송암장학생 - 27명
김재욱, 김준석, 백성훈, 박성윤, 손형린, 이한호, 한동현, 이유빈, 이준호, 이승준, 이혜진, 박선영, 김기남, 천예은, 김수정, 제연주, 이신원, 권보화, 최경미, 박한준, 이경빈, 임이랑, 조재석, 이근원, 박경주, 한현지, 김혜진
3. 디아스포라부 - 7명
박호진, 홍정원, 권영숙, 홍지아, 유수정, 최현화, 김진수
4. 교역자, 선교사 자녀 - 7명
황신혜, 한세희, 이준행, 김예나, 정에스더, 김하은, 조라빈
5. 호산나전문대학 - 3명 / 이현상, 문병훈, 노다은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 출범 9월 2일(월) 창립대회 / 이종윤 목사 상임대표로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을 이끌 목회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기독교계가 북한인권을 위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을 출범하고 북한인권을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60여명의 운영위원과 함께 공동대표단으로 이종윤목사, 이수영목사, 송기성목사, 박순오목사, 안용운목사 등 5인을 공동대표단으로 뽑았으며, 상임대표로 이종윤목사를 선출하였다. 오는 9월 2일 오후 1시 백주년기념관1층 대강당에서 창립대회가 열리며 주강사는 이종윤 목사이다. 이 일을 위해 서울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많은 참여 바란다.

2013년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 9월12일(목)~13일(금)

9월12일(목)~13일(금)에 실시될 2013 사랑의 바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바자의 주제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이며 목표로는 1.생명의 우물파기 2.미자립교회 돕기 3.불우이웃 돕기 4.탈북난민 돕기 5.아가페타운 지원으로 정하였다. 1, 2, 8층에 우물형상을 준비하고 그 취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사진을 붙여 놓았으며 이는 성도

여러분의 헌금이 모아질수록 우물에 물이 차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많은 헌금을 모으려는 목적 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듯, 우물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성도들의 마음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섬김의 기쁨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바자를 위한 주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명의 우물파기	~8월25일(주) 까지 / 1,2,8층 모금함 / 유년부(8/4), 초등부(8/11), 중등부(8/18), 고등부(8/25) 동참
1% 나눔 운동	8월 4일(주) ~ 8월25일(주) / 헌금 시
헌 옷 모으기	8월11일(주) ~ 9월 1일(주) / 104호
특 판	8월11일(주) ~ 8월25일(주) / 1층, 8층 접수 및 판매
어린이 바자	8월25일(주) / 유년부, 초등부
사랑의 바자	9월12일(목) ~ 9월13일(금) / 전체 바자회



지난 8월22일(목) 12시에 만나홀에서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73회 생신 감사예배를 당회주관으로 드렸다. 사진: 윤요섭 집사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99)

(문 98) 삼하 24:9에 의하면 이스라엘 인구가 80만명인데 대상 21:5은 110만명으로 보고 되고 유다 백성은 50만명(삼하 24:9)과 47만명(대상 21:5)으로 각각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유다의 북쪽지방에 사는 지파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대상 21장은 칼을 빨만한 자의 수가 했습니다. 그러나 삼하 24장은 담대한 자(is hayil, mighty men) 즉 전투 시 군인으로 투입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에 징집될 수 있는 자보다 전투에 가담한 자의 수가 30만명 적다 한 것입니다.

유다의 경우엔 대상 21장에는 삼하 24장보다 3만명이 더 적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대상 21:6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서 시작하여 북으로는 단 지파까지 남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진행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는 맨 마지막에 조사대상이 되었으나 이때 전체 수에 가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하 24장의 경우엔 이미 예루살렘에 근접해 있던 베냐민에 의해 군대로 소집된 3만명이 알려져 있던 것이 포함된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50만명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주전 930년 솔로몬 사후 남북이 갈라진 후 베냐민은 유다 왕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을 유다와 시므온과 함께 50만명으로 계산하여 보고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첫 번째 보고한 것(대상 21:5)에는 계산되지 않았으나 출정할 수 있는 장정의 총수는 160만명(이스라엘 110만, 유다-시몬 47만, 베냐민 3만)으로 이는 가나안 입국 당시 60만명(민 26:51)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였고 그것은 다윗 왕국의 번영상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계속)

장로수련회 8월30일(금)~31일(토)

장로수련회를 끝으로 우리교회 2013년 여름 수련회가 막을 내린다.

장로수련회는 아가페타운에서 오는 8월 30일(금)~31일(토) 양일간 열린다.

다락방리더 훈련 개강

혹서기를 맞아 잠시 방학하였던 다락방리더훈련이 8월 28일(수) 수요일 1부 예배후 본당에서 개강한다. 다락방리더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2013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

한가위를 먼저 준비하세요



장사꾼들의 이윤을 남기려는 장터가 아닌 각교구에 서 정성들여 준비한 상품이 가득한 장터에 이웃과 함께 오셔서 한가위의 풍성함을 느끼시기 바라며, 단지 물품을 사고 파는 바자가 아닌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모두 오셔서 함께하는 바자, 참여하는 바자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품목별 매장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층로비 : 가전제품, 화장품, 치약, 치솔, 건강식품, 패션용품, 약세서리 등 잡화
- 2층 : 기증의류 및 헌옷 매장
- 7층 : 여성 의류 및 유아용품
- 8층 : 녹두전, 메밀전, 순대, 떡볶이, 육개장, 샌드위치 등 각종 먹거리
- 9층 : 커피음료, 쿠키 등
- 분당 앞 : 고추가루, 간장, 된장 등 장류, 참기름, 들기름, 젓갈류, 과일, 사골 등 농축산물
- 돌 성경앞 : 김, 한과, 구두, 가방 등 생활잡화
- 한티공원 : 중고거래하는 벼룩시장

나의 하나님

금찬이여 사랑스럽다

모두다 바쁘니다
핑계가 있다면 바쁘다는 것입니다
금찬에 참여하실 수 있냐고 물으면
온몸을 흔들고 소리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빼주세요, 내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도 물어 봅니다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적격자이고,
당신이 있어야 한다고, 힘들면 일년만 어떠냐고
아니 육개월은 안되겠느냐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도망가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당신들을 금찬에 있게 했습니까
자발적이라고요 스스로 결정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요
대답이 다 이쁘고 마음에 들고 진짜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서서 하루도 빠짐없이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금찬 당신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쁘고 귀엽고 자랑스럽고
부럽고 존경스러운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성도들이 알고
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편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시간없다고
불평하지 않는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시간 정성 마음 헌신은
외상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였다가
삼십배, 육십배, 백배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 계속하실건가요
아니면 도중하차 하실건가요
게으름 피우실건가요 더 열심을 내실 건가요
주어진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사십시오
은혜를 끼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십시오
한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만족하십시오
오늘도 그 사명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십시오
내 사랑하는 금찬들이여!

금요기도회를 사모하는 성도

*금찬: 금요기도회 찬양팀 약자



예완식 집사
(2013바자 판매관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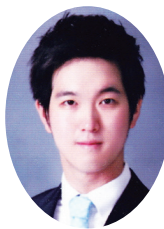
매년 추석일주일전 우리 교회는 사랑의 바자를 개최합니다. 이번 바자는 최저가에 도전하는 상품, 정가의 50%이하 상품, 맛있고 풍성한 다채로운 먹거리 등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못지 않는 질 좋은 상품들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성도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참여하는 바자가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쓰지않고 방치되어 있는 물건, 애장품등을 기증하고 서로 교환 할 수 있도록 중고상품 벼룩시장을 운영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성도들의 정성과 기도가 담긴 장학금을 받고



손형린 성도
(청년1부)

우리 주변에는 수 많은 장학금제도가 있고, 저마다 장학금의 이름과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국가 장학금은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우리 나라의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는 목적이 있고, 누군가의 이름을 딴 장학금들은 그분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장학생이 자라나길 바라는

한 헌금으로, 수여의 기준은 경제형편도 성적우수도 아닌 자기 신앙간증문, 교역자님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그런데 다른 기준도 아닌 저의 부족한 신앙을 보고 추천하여 주시고 제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니 자랑스러운 마음 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큰 동시에 다시금 겸손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다른 장학금들이 각각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교회 장학금도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서울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성도님들의 정성과 기도가 담긴 이 장학금을 받고 다음 학기 학업에 임하게 되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 우등생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울교회 청년이 되겠습니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에도 이와 같은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교회 장학금을 받으며 자라온 세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다시 장학금을 받게 되는 이 때, 교회가 나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교회 장학금은 성도님들의 소중

3교구일일수련회를 마치고

다락방 리더로서의 헌신과 결단의 시간



김순영권사
(3교구 간사)

우리 3교구 다락방 리더들은 후반기 다락방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다락방리더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자'는 주제로 경기도 오포에 소재한 광림수도원으로 일일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정수길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네장의 자료에는 우리가 일일수련회를 온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인선 교구장님 기도를 시작으로 기도 동산을 오르게 되는 출발점에 뜨거운 태양 빛이 내리 쬐었습니다.

이 날 기도회는 제목을 따라 다락방 리더들이 통성기도를 한 후 여섯 분의 권사님들이 마무리 기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분도 권사님은 천국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는데 고요속에 진잔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은옥 권사님은 치료자 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셨으므로 이제는 담대하게 영적 전사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해순 권

사님은 다락방리더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시며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감사히 헤쳐나갈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소선자 권사님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인처럼 사랑이 넘치는 다락방 리더들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채봉 권사님은 신행일치의 삶으로 다락방 식구들을 먼저 섬기는 다락방 리더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남태순 권사님의 기도는 다락방 리더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전해주시신 하인선 장로님은 참석자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한껏 품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 리더들은 짝을 지어 교회와 담임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정수길 목사님의 축도로 일정을 마치므로 기도 동산을 내려왔습니다. 사랑의 바자를 앞두고 우리 다락방 리더들은 하나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일일수련회를 위하여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인선 교구장님과 오유식 부교구장님께 감사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주일 주·정차 단속 강화 성도들의 주의 필요

강남구청으로부터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주일 주·정차 순찰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통보가 왔다.

성도들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주일 주·정차 단속이 유보되어 있는 삼성로 주변 주·정차시 반드시 주차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정차하고, 버스정류장 주차,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주차, 인근 아파트 출입구 주위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주일 주·정차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6일(월) Save N.K.와 과학기술단체총연과 통일대비 남북전문가 원탁회의에 참여한다. 미래한국 편집위원회에 참여한다.

■ 수상 : 2교구 이동만 집사 제35차 세계주문양복기술클럽대회 금메달

■ 박사학위수여: 12교구 오세정 성도(오광환 장로, 이안순 권사 장녀) 이태리 피렌체 대학 중세사 박사

■ 연주회 : 2교구김현정 집사 (2부예배 오르가니스트) 9월3일(화) 오후 7시30분 서울교회 본당 3층

■ 독창회 : 12교구 최유현 집사(시온찬양대 지휘자) 9월 10일(화) 오후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주간식당봉사 : 제1권사회(8.25) 제2권사회(9.1)
■ 금주의 식사 : 손종근 집사 최은석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교회 장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2. 다시 시작하는 다락방 모임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과 성도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인해 승리는 장이 되도록
3. 이종윤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남선교회 전국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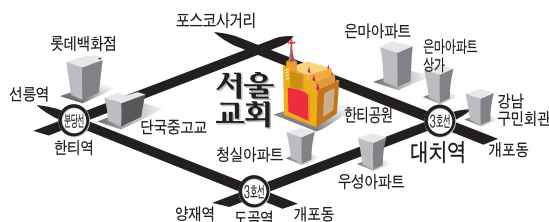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 창립89주년전국대회(08.21(수)~23(금),주제 : 이제는 회복케하소서)에 우리교회에서는 8명이 참석(오정수장로, 신용식장로, 최광성장로, 최규초집사, 김희동집사,김종철집사, 윤명구집사, 김상태집사) 하여 향후 남선교회에 대해 도전을 받고 은혜 가득한 시간을 체험하였다.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전 11시 15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I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